

# 시민들을 행복하게...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

전체 34명 의원 중 15명 '초선' 여성의원들도 11명 '역대 최고' 초선의원 다수가 3040 '젊은층' 어느때보다 열정적인 의정 기대

**제** 11대 전주시의회가 지난 9일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시 의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 34명 의원 가운데 15명이 초선이며 여성의원도 11명으로 역대 최고이다. 초선의원 대부분이 30~40대로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들은 앞으로 민의(民意) 수렴과 정책 연구를 통해 전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의정활동 구상이다.

## 의 장단의 의정 구상

###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

#### 박병술 의장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4선의 박병술 의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의장은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전주의 기적과 같은 발전과 도약을 이끌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우뚝 서왔다고 평가한 뒤 제11대 의회 또한 그 변화와 도전의 주역으로 의정역사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동료 의원들이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통해 지역의 진취적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 현안해결에도 적극 나서며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선 의원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특정 정당 위주의 의회 운영을 경계하기도 했다.



다. 또한 초선의원이 15명, 여성의원도 11명에 달하는 등 예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의원 연차나 전문성 면에서 전문성 역량 강화에 어느 때 보다 비중을 두고 여성의원들에 대한 정치역량 배려는 물론,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의장은 “시의원에 당선 시켜주신 6만 전주시민들께 또 다른 기적과 도약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의 더욱 큰 발전과 활약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회”

#### 강동화 부의장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부의장에 선출된 3선의 강동화 의원은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화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복지행정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부의장은 또한 제11대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은 “의회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부의장으로서 의장을 보좌하고 의원들을 지원하며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전주시의회 또한 부단히 발전하고 변화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답답된 비전이나 획



일화된 지역의 미래가 아닌 전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과 특색으로 우리만의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지역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주시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의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정리=송효철 기자

## 상 임위원장들의 의정 구상

###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 지원”

#### 김현덕 운영위원장

제11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3선의 김현덕 의원은 합리적 의회 운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선진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조례의 발의와 안건 심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민주적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의 위상 확립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의회에 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김현덕 운영위원장은 회의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의원활동의 적극적 인 홍보와 동시에 의회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의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불합리한 행정 개선, 집행부 견제 충실”

#### 백영규 행정위원장

행정위원회를 이끌어갈 백영규 위원장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주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전주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시민에게 불합리한 행정개선에도 적극 나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사업 입찰과 계약 등 회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으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전주시 재정운용 상태의 수시 점검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지역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전과 열정으로 나아가 행정위원회의 활약에 관심과 기대를 당부했다. 이어 “큰 비전과 열정으로 시민의 삶을 위해 일하는, 시민의 삶과 밀착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고미희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지역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를 향한 복지·환경도시로서의 비전을 발판으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등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진취적이고 행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기본 생계보장을 구축하고 저립 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시



비스 제공 및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 구현과 시민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자부하는 수준 높은 복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중심의 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고 위원장은 지역의 내실 있는 성장은 복지정책의 질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선진지방의 중심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다채로운 산업 콘텐츠 개발 경제 활성화”

####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형배 의원은 점차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생태기반을 조성하고 탄소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첨단정보통신, 가상증현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루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의 새로운 공단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의 유치



도모하고 고용창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영화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영화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영화영상산업의 메카 도시로 도약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전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화중심도시이자 첨단산업이 번영하는 명품도시 전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 “지속가능 도시발전으로 행복전주 구현”

#### 김진욱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욱 의원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고 도시기반 확충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건설 사업에 있어 예산 집행이 균형 있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시민의 편에서 철저히 감시와 감독을 할 것이며, 어떤 현상이든 바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공사 현장에 저탄소 공법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주택문제 해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보다 즐겁고 행동감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성장하여 명품녹색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서난이 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난이 의원은 시민들의 귀한 세금이 도시 발전의 토양이 되고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의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지역경제에 어떤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 타당성과 투자의



가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예산이 곧 시민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고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 예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이기에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